

저탄소 축산 표준모델 구축 본격화

장수군, 10개 기관·단체와 '저탄소한우 산업지구' 성공 조성·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장수군은 지난 2월 27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된 '저탄소한우 산업지구'의 성공적인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해 장수한우지방공사, 전북대학교, 장수·장계농협, 무진장축협, 전국한우협회 장수군지부, 장수군유통사업단, (주)티비이오텍, (주)복수 등 10개 기관·단체 대표가 참석해 협약기간 상호 업무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장수군은 사업 총괄과 정책 지원을 담당하고 전북대학교·무진장축협·장수한우지방공사·(주)티비이오텍은 저메탄 증축 및 사양관리 기술개발과 현장 실증을 추진한다.

또한 (주)복수는 저탄소 기반 도축·가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수·장계농협과 장수군유통사업단은 '장수 저탄소 한우' 브랜드 홍보와 판로 확대에 나선다.

여기에 전국한우협회 장수군지부는 생산자 조직으로서 농가 참여 확대와 현장 의견 수렴, 사업 확산을 위한 협



장수군은 지난달 27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된 '저탄소한우 산업지구'의 성공적인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장수군은 이번 협약 참여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데이터 공유와 탄소 감축 가이드라인 준수, 공동 마케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사업 실행력을 높이고 장수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저탄소한우 산업지구'는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총 289억원을 투입해 저탄소 증축·사료 기술개발, 농가 저탄소 사양관리 체계 구축, 도축장·가공센터 저탄소 첨단화, 저탄소 유통·판매 플랫폼 구축 등 한우 산업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저탄소 가치사슬

을 구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특히 장수한우의 생산부터 가공·유통까지 전 단계의 탄소배출을 체계적으로 저감해 지속 가능한 축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저탄소한우 산업지구는 단순한 축산 지원사업을 넘어 기술·산업·유통을 통합한 전북형 산업혁신 모델이다"며 "장수군을 대한민국 저탄소 축산의 표준모델로 구축해 장수한우를 전국 최상위 품질의 한우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덕유산 설천 상단서 즐기는 스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프링 시즌' 운영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대표 성장현)가 겨울의 끝자락을 붙잡고 싶은 스키어와 스노보더더들을 위해, 설원 위 마지막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2026 스프링 시즌'을 전격 오픈했다. 이번 시즌은 폐장 전 마지막 활주를 기다려온 마니아들에게 덕유산 설천 상단의 비경을 가로지르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달려주는 '갯성비' 요금제는 물론, 올인원 패키지는 무거운 장비를 챙길 필요 없이 가벼운 발걸음으로도 즉시 슬로프에 나설 수 있는 편의성을 갖춘

3월 3일부터 운영되는 이번 스프링 시즌은 고물가 시대 고객들의 부담을

것이 특징이다.

스프링 시즌 동안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설천지역 슬로프가 운영된다. 이번 스프링 시즌의 가장 큰 매력은 짐 챙길 필요 없는 '무계획 당일치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고객 부담을 덜기 위해 리프트 1일권은 주중 4만 원, 주말 5만 원의 정액 요금으로 낮추고, 장비 렌탈은 단돈 1만 원이다.

특히, 당일치기 스키어들의 환호를 부를 '올인원 패키지'가 눈길을 끈다. 리프트권은 물론 장비와 스키복(자켓, 바지, 헬멧 포함)까지 풀세트로 빌려주는 이 패키지는 주중 5만 5천 원, 주말 6만 2천 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된다.

/무주=손흥기 기자

무주군, 산림 분야 직접 일자리 사업 근로자 발대식

무주군은 3일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2026년 산림 분야 직접 일자리 사업 근로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림 참여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며, 발대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의장, 선발근로자 등 1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장별 운영 업무와 일정, 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규정 설명을 포함한 안전교육과 분야별 설명회를 진행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산림자원의 가치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 안전사고 예방을 다짐하는 '참여 근로자 결의문'을 채택했다.

/무주=손흥기 기자



진안군은 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를 차례로 방문해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과 행정 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공식 건의했다.

'진안형 기본소득' 공조 확대

농식품부·보건복지부 방문해 시범사업 추진 위한 지원 공식 요청

진안군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내 소비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속도를 냈다.

군은 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를 차례로 방문해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과 행정 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체적으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진안군은 정부 정책 기초에 발맞춰 선도적으로 제도 기반을 갖추고,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방문에서는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방향과 연계해 진안군이 자체 재원으로 준비 중인 시범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특히 농촌의 인구감소와 소비 위축 등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의

선제적 노력에 대한 중앙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를 찾아 현재 진행 중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의 조속한 마무리를 건의했다. 군은 협의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추경을 통한 재원 확보와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행정 협조를 요청했다.

진안군은 지난해 12월 「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기본소득IT팀 신설을 통해 정책 기획과 제도 설계, 재원 분석을 전담하는 내부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2월에는 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기본소득위원회 구성·운영을 시작하고, 조례 개정 입법예고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 또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기본소득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협의 체계를 갖췄다.

이로써 진안군은 제도적 기반과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범사업을 실행 단계에 올려놓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혁신 주니어보드 발대식 갖고 본격 활동 돌입

장수군은 지난달 27일 군청 회의실에서 '제4기 혁신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하고 젊은 공직자 중심의 참여형 혁신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제4기 장수군 혁신 주니어보드 발대식

혁신 주니어보드는 5년차 이하 공직자들이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내부 혁신기구로, 세대 간 소통을 확대하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2022년 10월 첫 출범 이후 3기까지 운영되며 변화동 위케이션 활성화 방안 논의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해 온 주니어보드는, 올해 4기를 맞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활동을 이어간다.

이번 제4기에는 자유 신청을 통해 19명의 회원이 선발됐으며 △조직문화

개선 과제 발굴 △일하는 방식 혁신 논의의 △SI 역량 강화 교육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제안된 의견이 단순 건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행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군은 현장의 목소리가 긍정 전반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3월부터 '12% 할인'

진안군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의 상시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한다.

이번 할인을 상향은 진안군이 인구감소 지역으로서 확보한 국비 추가 지원을 동력으로 삼았으며, 여기에 주민의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진안군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더해진 결과다.

군은 이번 개편과 함께 월간 판매 상한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그동안 수요에 따라 제한 없이 판매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매월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계획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는 할인을 상향으로 인하여 구매가 쏠려 조기에 예산이 소진되는 현상을 막고, 연말까지 중단 없이 상품권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는 50만 원(카드·지류 통합)이며,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판매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앱 'chak'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단, 매월 설정된 판매 상한액이 도달할 경우 해당 월의 판매는 조기 종료되며 이용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미취학 아동 통합건강교실 운영

진안군은 미취학 아동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아이-원(One)' 통합건강교실을 3월부터 운영한다.

'아이-원(One)' 통합건강교실은 성장기 아동의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과 건강증진을 목표로 △건강체조교실 △영양교실 △구강교실 △야외스포츠 △예방교실 등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각 프로그램은 영양사, 운동지도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등 보건소 전문 인력이 직접 참여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합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과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